

월 동 사양 관리

BEEKEEPING MANAGEMENT FOR THE WINTER

10~11월은 내년 농사를 위하여 마지막 월동 관리를 해야 할 시기로써 각 소비마다의 식량점검, 진드기 소독, 적당한 착봉 및 합군과 예비 보온 그리고 월동 포장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가. 월동 식량

작년과 다르게 기온이 다소 낮은 관계로 못해도 10월 중순에서 말경 전까지 월동사양을 마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늦게까지 산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산란을 받아도 되겠지만 아침저녁 기온이 내려가므로 빨리 식량을 주어서 산란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남부 해안 등 녹차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꿀과 화분이 잘 들어와 산란을 좀 더 받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식량은 각 소비마다 4/5정도씩 채워지도록 주어야 산란 압박도 되고 월동 식량도 충분하게 되며 봉개는 소비마다 1/3~1/2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봉개가 적으면 사양이 다 끝난 다음 식량을 가운데로 자꾸 옮겨 겨울에는 양끝 쪽에 식량이 부족하여 부분 아사가 되기 때문에 식량을 다 주기 전에 완전 봉개가 된 소비장을 양 가에로 가도록 하여 가급적 마지막 사양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는 봉개된 소비장이 보온이 되면서 사람이 온돌방에서 이불과 요를 깔고 덮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군의 경우 월동을 나는데 있어 세력이 약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산란을 하여 식량 주는 것이 늦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벌이 늘어 손해가 따르므로 과감히 합군을 해 주는 것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지난 해 아카시아 철이나 가을에 노제마 또는 부저에 걸렸던 봉군을 월동식량 중간 정도에서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계통의 약을 식량에 타서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마지막에라도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약은 잘 녹지 않으므로 미리 따뜻한 물에 타서 사양액에 타도록 해야 희석이 잘 된다. 잔류가 자유롭지 못하니 소비자단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좋다.

나. 진드기 소독

진드기는 전 세계적으로 꿀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구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봄, 가을 봉충이 없는 시기를 선택하여 약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는데 이 달 중에는 늦어도 마치도록 해야 하겠다. 월동 식량이 끝난 후 봉충 상태를 보아서 그 지역에 맞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바닥에 깊이 넣게 되면 나중에 봉교와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꺼낼 때는 소비를 들어내고 꺼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소문에서 5mm정도 남겨 놓고 밀어 넣었다가 1주일 후 집게 등을 이용해서 꺼내면 많은 일손을 덜 수 있다. 약제 처리 후 유봉이 많이 기어 올 때는 약이 과다하다는 증거이므로 줄여서 처리하면 된다.

중부 지방에 있는 벌들은 가시응애가 월동 전에는 대부분 몇 마리씩 보이게 되는데 남부 지방에 가서 옮겨오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벌 몸에 기생하며 극소수가 월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겨울에 새끼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죽게 되며 진드기 약제처리를 봉판이 없을 때 비넨볼로 처리하면 가시응애도 죽게 되므로 별도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 합군

합군은 항상 얘기하지만 일찍 할수록 좋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수시로 벌이 몰릴 경우

바로 바로 해 주어야 한다.

월동 식량이 다 끝난 이후에도 0.5~1매 정도씩은 감봉으로 대부분 줄게 되므로 최소한도로 4매 월동은 들어가야 내년 봄에 1매 정도의 벌이 남게 되며, 5매 이상 들어가야 2매가 되므로 군세를 보아가며 가급적 강군으로 월동을 내야 월동 식량 소모도 적고 벌들도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다 더 안전하게 지속되므로 통수 보다는 군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계상을 관리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계상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강군 월동이 들어가므로 지속적인 계상 관리가 이어지게 되어 우리도 계상을 올리고자 하는 양봉인들은 최소한 7매 이상은 월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다. 봄에 계상이라고 하더라도 역봉이 가득한 봉군과 그렇지 못한 계상과는 채 밀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합군을 해도 싸우지 않으므로 가급적 구왕이 있을 경우에는 구왕을 죽이고 바로 합군을 해 주어도 무방하며 교미상에 아직도 여왕벌이 남아 있을 경우 대부분 지난 달 하순부터 이달 중에 도망가게 되는데 왕 교체를 해 줄 것이 있으면 빨리 끝내 주어야 하겠다.

합군을 하데 약군을 강군에 합군을 하여야지 약군과 약군끼리 합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유는 1+1=분명히 2가되어야 되는

데 결과는 1은 온데간데없기 때문이다.

라. 가포장

별은 월동 식량이 다 끝난 이후에는 육아나, 화분 반입 또는 꿀 역사 등 일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생존 할 수 있는 체력을 좀 더 아껴서 월동한 이후 봄에 최대한 오래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남부 지방 월동 성적이 부진한 이유도 10월과 11월 혹은 12월까지 날씨가 월동하기에는 좀 따뜻한 편이라서 출입이 많은 관계이므로 중부이남 지역에서는 가급적 월동하는 장소가 그 지역에서 추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하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산 아래 월동을 한다던가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은 곳에 월동을 할 때 월동 성적이 좋아지게 된다.

누구나 같은 봉군을 가지고 월동을 잘 날 수 없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식량을 준 후에는 가급적 벌을 촉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보온을 적게 하면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좋은데 이때 스티로폼을 뚜껑위에 넓게 덮어 전면에도 스티로폼을 대어 주는 것이 따뜻할 것 같아도 오히려 태양열을 막아주어 벌통 내부에서는 시원하게 된다.

그 동안 덮어 주었던 보온 덮개에는 오히려

따뜻한 성질이 있으므로 뚜껑 위어나 두껍게 하여 태양열을 막아주는 역할이나 해 주는 것이 좋다. 10월이나 11월에 스티로폼 벌통이 봉구가 지면 나무통보다 봉구가 잘 풀리지 않으므로 출입이 적어도 오히려 같은 균세일 때 스티로폼 벌통이 월동 성적이 좋은 것도 이러한 이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내부 개포 위에 보온 덮개나 왕겨 등은 더워서 봉구를 방해 하므로 일찍 보온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 쯤 11월 중하순쯤이나 해 주는 것이 좋다. 월동시 최적 온도는 4℃정도이므로 이달에 서리가 올 때의 온도와 비슷한 상태로 생각하면 되겠다.

활엽수 나무 아래는 가을에 낙엽이 질 때까지는 시원하고 봄에 번식을 할 때는 잎이 안나와 봄과 가을 관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

내부 포장은 소비 양 가에 쪽에 보온판을 대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월동 식량 끝난 후 가운데로 식량을 이동해 오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월동 시에 양 가에 쪽 벌이 부분 아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식량을 줄때부터 미리 해 주면 따뜻하여 양 가에 쪽 봉개도 잘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된다.

이때 하이플이라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면 벌이 굶지 않을 뿐 아니라 가벼워서 쓰기에 매우 편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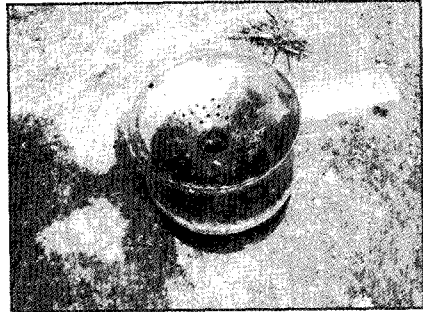
월동 장소를 논 같은 데에서 많이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될 수 있어 먼 바닥에 습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월동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마. 말벌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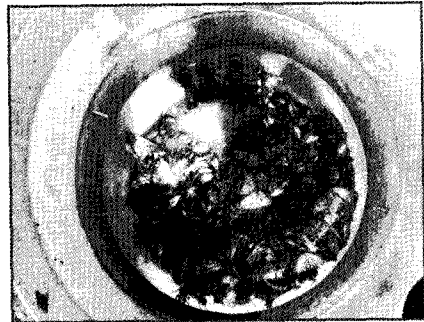
이 달에도 서리가 내릴 때까지 말벌이 피해를 주게 되므로 수시로 봉장을 살피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기 전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말벌 포획기나 유인제를 부어 사용 하거나 또는 끈끈이에 2~3마리 말벌을 붙여 피해를 입는 봉군 뚜껑위에 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여러마리 씩 붙어 죽게 되므로 피해가 절대 확산되지 않으므로 봉장을 굳이 오랫동안 말벌을 잡기 위하여 지킬 필요가 없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말벌 유인제를 만드는데 만은 어려움이 있는데 봄에 집에서 담은 매실 액기스를 50cc정도 주사기로 뽑아 휴지을 3겹정도 접어 부어 주면은 잘 들어다. 시중에 판매하는 말벌 포획기가 부담이 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통을 구하여 잘라 아래 사진과 같이 만들어도 잘 들어간다. **양봉**



생수통을 잘라 만든 말벌 포획기



생수통 포획기에 들어가 잡힌 말벌